청소년 '심신수행 삼매'로 무더위 잊는다

재가안거, 집중명상 등 이어져

동련 21일 재가안거 개최 눈길
용주사 · 국제선센터 강좌 개설
탄허기념관 명상 · 인문학 접목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7년 동련이 개최한 제 1회 어린이 · 청소년 재가안거에서 삼매에 빠져있는 불자의 모습.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함께하는 수행의 장이 마련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심산)와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이 개최하는 '내 안의 감사향기' 어린이 청소년 21일 재가안거다. 재가안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21일간 진행되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행 프로그램은 불교 미래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동참해 불자수지독송, 감사수행일기, 수행발원문, 사불, 감사편지 작성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수행집에 따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재가안거는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고생까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경우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내 안의 감사향기〉 수행집은 사단법인 동련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밴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수행 모습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지도법사 스님들이 점검할 수도 있다. 입재식은 각 사찰이나 개인적으로 봉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가안거 회향식은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 부산 흥법사에서 봉행된다.

화성 용주사(주지 성월)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氣)충전 행복에너지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참선, 108배 기공, 화산숲길 명상 기공, 다도 체험, 예불, 발우공양, 우리문화 바로 알기 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7월 21일과 22일 국제선센터와 인근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여름불교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사찰예절교육을 시작으로 명상과 108배, 소금만다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27일부터 29일까지는 2박3일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야단법석 어린이 영어캠프'도 실시한다.

탄허기념관(관장 혜거)도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완명상과 집중명상, 놀이와 활동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명상프로그램 '마음의 소리'를 진행한다. 마음의 소리는 특히 한국박물관협회와 인문학 사업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술교육과 명상을 접목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마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방학을 맞아 다양한 놀이 위주의 동적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을 위한 정적인 수행 또한 필요하다"며 "정적인 수행에 재미를 더해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재가단체 '반쪽 통합' … 희망 불씨 남아

총연합신도회 출범에 부산불교신도회 '보이콧'

부산불교신도회 · 연합신도회
통합할 총연합신도회 꾸렸지만
부산신도회, 절차에 문제제기
두 단체 화합에는 모두 공감



박수관 총연합신도회장(사진 가운데)과 양재생 수석부회장이 경선 스님으로부터 회기를 받아 힘차게 흔들고 있다.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신도회가 둘로 나뉜 지 10년 만에 이를 아우를 통합조직이 구성됐지만 한쪽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평가를 받게 됐다. 화합이라는 명분에는 서로 공감하지만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7월 12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및 금정총림 범어사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대성 前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각계 대표 단체와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화합을 위한 핵심단체인 부산불교신도회가 불참하면서 그 의미가 바랬다.

애당초 이 행사는 현재 둘로 갈라진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통합을 위해 추진됐다. 본래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재가단체는 1967년 5월 창립된 부산불교신도회였으나 2008년 11월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양분된 형태를 유지해왔다. 당시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계 대화주였던 故하도명화 보살이 부산불교신도회에 기부한 해운대구 소재 토지 기금 사용처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연합신도회 출범의 원인이 됐다.

이로부터 약 10년간 양 단체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만 지속됐다. 이에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이 화합을 위해 힘을 쏟으며, 양 단체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뭉치길 서원했다. 다행히 양 단체가 화합의 뜻에 공감하며 함께할 것을 다짐했으나 출범식을 앞두고 서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불교신도회는 총연합회 출범식 전인 6월 28일 부산불교연합신도회에 내용증명을 발송,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알렸다. 내용증명에서 부산불교신도회는 "통합을 위해선 주요 회담을 준비하는 양측 실무기구가 조직되고,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일을 성사시켜야하지만 본회는 어떤 과정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상대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사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회원들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통합에 앞장섰다"며 "하지만 우리 단체는 재단법인으로 통합하려면 논의가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롭다. 의사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운영진에도 우리 측 회원 1명만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같은 부산불교신도회의 불참으로 통합은 무산됐지만 경선 스님은 향후 의견 조율을 통해 완전한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부산불교신도회도 이날 총연합회장으로 취임한 박수관 회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 경선 스님은 "2년간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해 공을 들이고 노력했다. 오늘 행사 전에도 함께 의논하며 모두 통합에는 합의한 상황"이라며 "결국에는 대통합을 이룰 것이고, 오늘은 이를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름휴가는 산사로 떠나자

전국사찰서 여름 맞이 템플스테이 운영

올 여름, 아직까지 휴가 피서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사찰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전국 72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서 여름휴가가 고민인 당신을 위해 '여름휴가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서울 '도심 속 산사를 거닐다'

금선사는 8월 8~9일 '가족, 친구 산사캠프'를 실시한다. 가족 · 친구 · 연인과 함께 산사에서 깊은 밤 산새가 우는 낭만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또 도심 속 산사를 거니는 '숲속 걷기명상'과 나의 고민 등을 털어놓으며 스님과 대화하는 '스님과의 talk talk'이 준비돼 있다.

진관사는 7월 28~29일 '내 마음 속 예쁜 꽃씨를 찾아(어린이)', 8월 4~5일 '내게 몰입하는 1박2일(청소년)', 8월 18~19일 '본래 내가 안고 사는 행복한 달(성인)' 등 참가자 나이에 맞춘 다채로운 템플스테이를 연다. 9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난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를 모티브로 만든 '태극등 만들기'를 비롯해 108배, 타종체험, 명상, 차담, 사찰음식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가벼운 나들이, 나만의 여행'

비밀의 숲이 있는 봉선사는 8월 1~5일 '제2회 붓다의 향기'를 진행한다.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명상프로그램과 더불어 힐링멘토 혜민 스님, '내비둬콘서트' 진행자 일감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BTN 라디오 진행자 원영 스님 등이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용문사는 8월 매주 토요일마다 1박2일 여름 템플스테이를 연다. 시원한 계곡 물놀이를 비롯해 화덕 채식피자 만들기, 스님과 함께하는 아쉬탕가 요가, 은행잎 소원쓰기 등 한여름밤을 가득 채울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충청도 '한여름밤의 꿈'

반야사는 7월 27~29일 '가족끼리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반야사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좋은 '천연 손수건 염색체험'부터 소백산맥의 한 봉우리인 백화산 정기를 받으며 걷는 숲길 명상 등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갑사는 7~8월 '캠핑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보물로 가득한 갑사를 알아보는 시간과 △108 여의보주 만들기 △별빛 명상 △용문폭포 걷기명상 등 숲속 텐트에서 사찰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원도 '여름엔 역시 강원도'

보현사는 7~8월 '뒹굴뒹굴 휴&휴' 프로그램을 연다. 힐링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시키는 요가를 비롯해 △스님과의 차담 △사물체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등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속 시원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특히 강릉에서 유명한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체험도 가능하다.

고판화로 잘 알려진 명주사는 7월 28~29일, 8월 4~5일, 8월 11~1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 템플스테이에서는 목판화 인쇄로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고, 해설이 있는 박물관 관람을 할 수 있다. 발우공양과 명상 등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라도 '나를 찾으며 만나는 구도의 길'

여름에 바다가 빠질 순 없다. 바다와 가까운 완도 신흥사는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외국인도 참가 가능한 '여름 바다소리, 풍경소리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구계등 해변서 달빛아래 포행이 준비돼 있으며, 고요한 숲길을 따라 명상하는 등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되돌아보는 체험이 다양하다.

지리산자락 피아골 연곡사는 8월 1~12일 '오직 쉴 뿐 休~'를 진행한다. 여름휴가지로 손꼽히는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울창한 숲속을 거닐며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경상도 '천년 역사 속 1박2일'

축서사는 7월부터 8월까지 '산사의 바람소리'를 연다.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참선을 비롯해 별자리를 찾아보는 '별빛명상' '소금만다라' '솟대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표충사는 7월 27~28일, 8월 3~5일 '호국성지 표충사에서 여름나기'를 운영한다. 전국에서 하나뿐인 850m 고지의 사자평 답사, 푸른 나무 아래 숲길 포행, 공예체험, 별빛아래 텐트 취침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